

## 협회, 신문산업 발전·adKAN 활성화 주력

이사회 '2019년 사업계획' 확정, 3월 21일 정기총회 상정  
매일신문 이상택 발행인 부회장 선임



2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발행인들이 올해 협회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을 한해 신문협회는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신문산업 활성화에 주력한다.

신문협회는 2월 28일 344차 이상 회를 열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신문읽기 캠페인 전개 △신문활용교육(NIE) 활성화 △대(對)포털 적정 뉴스 저작권료 요구 △신문의 사회·경제적 효과 입증 등 2019년 사업 계획을 의결하고, 3월 21일(목)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 행태 조사 △활자 매체 이용과 뇌 활성화·두뇌 발달의 상관관계 연구 △지상과 중간광고 도입저지 등 매체 균형발전 정책 추진 △프레스센터 관리·운

영권 언론계 환수 △언론지원기금 확충 △신문규제법안 저지 및 신문진흥법안 추진 △포털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전환 등 디지털·뉴미디어 대응 △ABC공사제도개선평의 활성화 등이다. 이사회는 이날 신문광고디지털전송시스템(adKAN)의 수치 균형 및 이용률 확대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한편 이사회는 공석 상임 부회장인 매일신문 이상택 발행인(사진)을 새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0년 정기총회까지다.



## 英 정부, “저널리즘 미래 위해 공적기금 지원해야” “언론사와 포털간의 관계 조정을 위한 행동규범 필요...언론사 세금 감면해야”

英 정부 발주 ‘저널리즘의 지속가능한 미래 보고서’에서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적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영국 정부가 지난 2월 12일 공개한 ‘저널리즘의 지속가능한 미래 보고서’에서 강조한 핵심 내용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디지털 시대 영국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고품질 뉴스의 미래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데임 프랜시스 케인크로스(Dame Frances Cairncross)에 연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보고서는 뉴스 미디어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 언론사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위협요소, 검색엔진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 디지털 광고의 역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 공공재인 저널리즘을 위한 국가의 새로운 재정 지원방안 △언론사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등)와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권한 제한 등 2가지에 초점을 맞

췌다.

케인크로스는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지역 언론 보도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레미 라이트 문화부 장관은 “정부가 이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해 연내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주요 제안내용을 소개한다.

### ① 공익 뉴스 보급 위해 혁신 자금 출범

정부는 공익 뉴스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 자금을 출범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네스타(Nesta, 국립영국과학기술예술재단)에서 운용토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네스타,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 BBC, 학술단체, 언론사,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공공 뉴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뉴스기구(Institute for Public Interest News)’를 설립

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지역 공익 뉴스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지역 민주주의 보도는 확대돼야 한다. 공공 기금으로 지역의 공익 뉴스 콘텐츠에 대해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관리 책임은 공익 뉴스기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언론사 세금 감면

정부는 ①온라인 뉴스 시장의 작동방식 개선 ②공익 저널리즘의 적절한 공급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새로운 세금 감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언론사에게 자선 단체 같은 자격을 부여해 언론사의 세금을 감면하고, 디지털 뉴스 구독에 대한

20%의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해야 한다.

### ④ 공익 뉴스를 위한 기구 설립

위에서 설명한 ‘공익뉴스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기구는 정부와 기타 출처의 자금을 분배하는 독립 기관으로 역할한다.

▶3면에 계속

## 제63회 신문의 날 풍성한 관련 행사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는 4월 4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및 축하연’을 갖는다.

오후 4시 30분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기념대회에서는 신문협회상, 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 시상을 한다. 오후 6시부터는 자리를 옮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계·재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신문상 시상과 기념 축하연이 열린다.

신문협회는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전 회원사와 함께 신문의 존재가치와 신문읽기의 중요성을 알

리기 위해 ‘신문주간(4월 1~7일) 공동광고’ 캠페인도 펼친다.

이에 앞서 4월 3일(수) 오후 2시에는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기자협회는 3월 24일(일)~30일(토)

‘세계평화와 언론의 역할(부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대한민국의 미래)’을 주제로 ‘2019 세계기자대회’를 한국프레스센터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이날엔 국무총리를 초청해 국정정책 및 현안을 주제로 3월 13일(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 신문의 날 관련 행사

|                  |                                  |
|------------------|----------------------------------|
| 3월 13일(수)        |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 토론회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
| 3월 24일(일)~30일(토) | 2019 세계기자대회 / 한국기자협회 주최          |
| 4월 3일(수)         |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 한국신문협회 주최         |
| 4월 4일(목)         | 신문의 날 기념대회 및 축하연 / 언론3단체 공동 주최   |
| 4월 1일(월)~7일(일)   | 신문주간 공동광고 / 한국신문협회 주최            |

# 세계인들 “신문 등 전통 미디어를 가장 신뢰”

## 2019 에델만 신뢰 지수 보고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업체

각종 미디어가 범람하고 있지만 그 중 신문 등 ‘전통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업체인 에델만(Edelman)이 지난 1월 30일 발표한 ‘2019 에델만 신뢰 지수 보고서(Edelman Trust Barometer)’ 내용이다. 이는 에델만이 해마다 각 국 정부, 기업, 언론 및 비정부 기구 등의 신뢰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로, 올해 보고서는 27개국 3만3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2018년 10월 19일~11월 16일 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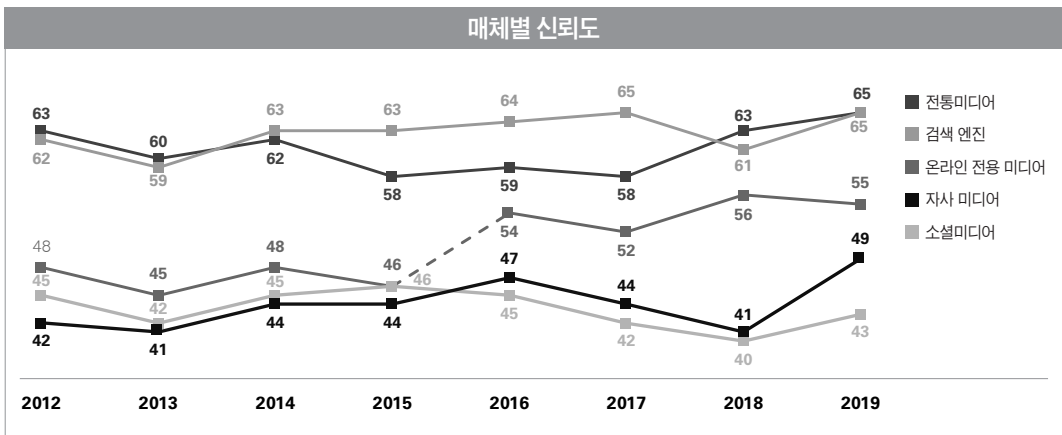
### 전통 미디어 신뢰도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63%에서 올

해 65%로 2% 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검색 엔진도 65% 신뢰도를 기록했으며 온라인 전용 미디어는 55%, 자사 미디어(기업 홈페이지, 기업 공식 블로그 등 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미디어)는 49%, 소셜미디어는 43%에 그쳤다.

미국·캐나다·유럽에서 전통 미디어 신뢰도는 소셜미디어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중동·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통 미디어 신뢰도는 소셜미디어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27개국 전체 미디어 신뢰도는 지난해 44%에서 올해 47%로 3% 포인트 증가했으며, 한국의 미디어 신뢰도 역시 지난해 40%에서



올해 42%로 2% 포인트 상승했다.

### 대중의 뉴스참여 22% 포인트 증가

조사에 의하면, 대중의 뉴스 참여(뉴스 읽기, 공유하기, 포스팅하기 등)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72%로 22% 포인트 상승했다.

에델만은 뉴스 참여 형태를 ① 에델만은 뉴스 참여 형태를 ① 거리를 두는 그룹(The disengaged, 주1회 미만 뉴스 소비), ②소비 그

룹(Consumer, 주1회 이상 뉴스 소비), ③증폭 그룹(amplifier, 주1회 이상 뉴스를 소비하고 한 달에 여러 차례 기사를 공유·포스팅) 등 3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증폭 그룹’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40%로 14% 포인트 상승했고, ‘소비 그룹’도 지난해 24%에서 32%로 8% 포인트 상승했다. 에델만은 참여 증가의 이유로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정치 상황, 영국의 브렉시트 및 다른 국가의 정치·금융 기사 등 규모가 큰 국제 뉴스 기사 많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증폭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언론사가 여성 독자에 대한 이해와 홍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에델만은 분석했다.

## 신문협회 2019년 주요사업

# 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원사 이익 극대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신문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문협회는 올 한해 신문읽기 캠페인, 신문산업 정책 및 미디어 법제 정비, 디지털 및 뉴미디어 대응 등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2월 28일 신문협회 이사회가 승인한 2019년 협회 주요사업을 살펴본다.

### 신문읽기 캠페인

신문협회는 신문의 존재가치와 신문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문읽기 캠페인을 펼친다.

우선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 행태 조사 △할자매제 이용과 뇌 활성화·두뇌 발달의 상관관계 연구 등 2건의 조사연구를 통해 신문의 가치와 영향력, 파급력을 증명한다. 또 신문의 특징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대형 현수막과 신문광고를 제작, 프레스센터 외벽과 회원사 지면에 각각 게재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의 중요성과 가치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정책·법제

정책·법제 부문에서는 신문 구

독료 소득공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협회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독료 결제 수단별(지로, 자동이체, 카드 등) 소득공제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43)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출범한 ‘대한민국미디어정책포럼’은 올해 ①공공재로서의 언론의 역할 ②미디어 리터러시(문해(文解)) 능력 복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③미디어 복원과 디지털 뉴스 유통 생태계 정상화 ④저질·저신뢰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 ⑤개혁과 통합을 위한 국회·신문의 역할 ⑥대한민국 2030 시대의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국회 및 신문의 역할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매체 균형발전 정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점 추진한다. 회원사와 공조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 언론 지원기금 확충 등은 올해도 주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신

문 관련 법안에도 적극 대응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된 정 부광고법과 관련해, 회원사의 실질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법대로 광고대행수수료(10%)를 광고주(정부·공공기관)가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디지털·뉴미디어

올해 추진할 디지털·뉴미디어 관련 주요 사업은 ①대(對)포털 적정 뉴스 저작권료 산정 ②포털 뉴스서비스 아웃링크 전환 ③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협의체 구성·운영 ④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기능 정상화 등이다.

적정 뉴스저작권료 산정과 관련해 신문협회는 포털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할 것을 다시 제안할 방침이다.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화 할 경우에도 뉴스 저작물을 통해 얻은 (광고)수익은 그 수익의 일부를 언론사에 배분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나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포털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전환은 언론·포털·국회·정부·학계·이용자 등으로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논의를 계

속할 방침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디지털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저널리즘 가치 회복, 이용자 정보복지 제고 및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독자확대·NIE

올해 NIE 사업은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맞춰 진로 등 공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올해 NIE 패스포트는 ‘청소년 자존감과 사회적 소통능력(청소년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후원을 받아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회원사 기자들이 일선 초·중·고 180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제공하는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올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를 10% 정도 의무 할당해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지역을 우선 배려할 방침이다.

진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는 ‘신문을 활용한 진로·융합교육

교원연수’를 춘천과 부산에서 각각 차례씩 개최한다.

### adKAN(신문광고디지털전송 시스템) 이용 확대

올해 adKAN은 수지균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정부광고법 시행에 따라 정부광고의 애드칸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구축 중인 정부광고통합시스템과 adKAN을 연계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 광고회사 영업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확대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한해 4만5000건(전년 대비 45%증대)의 전송을 목표로 삼고 △정부광고 및 광고회사 이용률 확대 △광고회사 대상 이용설명회 △신문사와 광고제작 정보 공유 등을 집중 추진한다.

### 조사연구

올해 연구 아이টে은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 행태 조사 △할자매제 이용과 뇌 활성화·두뇌 발달의 상관관계 연구 △국내외 신문의 정정보도 법제·정책 비교 등이다.



# NYT, 독자 기부 받아 학생 300만 명에 기사 제공

## 미래독자 확보 위해 매칭 방식...독자 3만 명 동참 파이낸셜타임스, 워싱턴포스트도 학생 구독 지원

뉴욕타임스(NYT)가 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12~18세 공립학교 학생에게 디지털 기사를 무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영국 저널리즘 전문 사이트 '저널리즘(Journalism)' 보도에 따르면, NYT는 2017년부터 '학생 구독 후원(sponsor a student subscription)'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발적 기부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약 3만 명의 독자를 확보했다. 이들이 후원한 기부금으로 현재 미국 50개 주(州) 4,000개 공립학교의 학생 300만 명이 무료 구독 혜택을 받고 있다.

독자들은 NYT의 후원 사이트(www.nytimes.com/subscription/

sponsor/lp8QRY.html)에서 10~2,000달러(약 1만 1,000원~223만 원)중 기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25~50달러를 기부하면 한 개 학급에 1년간 디지털 무료 구독이 제공되고, 100~500달러를 기부하면 전체 학년, 1,000~2,000달러를 기부하면 전체 학교에 무료 구독이 제공된다.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50달러이며 100만 달러를 기부한 독자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매칭 방식으로 이뤄진다. 25달러의 기부금을 받아 한 학급에 무료 구독이 제공되면, NYT가 추가로 한 개 학급에 무료 구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학교 IP주소를 통해

와이파이(Wi-Fi) 접속 시 NYT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기사를 이용해 수업 및 과제, 학습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 NYT NIE 사이트인 '러닝 네트워크(Learning Network)' 이용이 가능하다.

NYT는 교사를 위한 맞춤형 기사를 직접 선정한다. 수업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사를 이미지 및 주제별로 묶어 아카이브도 구축했다. 2017년 이후 모금된 기부금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웨비나(webinar·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실시간 혹은 녹화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를 개최하기도 한다.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미디어 리터러시'다.

NYT의 구독 성장 책임자인 한 나 양(Hannah Yang)은 "이 프로그

램의 목적은 학교 교과과정에 품질 높은 기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일찍 (NYT) 브랜드에 접근할 수 있다면 나중에 구독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지난 2월 19일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과 협약을 맺고 약 1,200개 공공 도서관에 NYT 디지털 기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2300만 명의 도서관 회원은 도서관 컴퓨터를 통해 NYT 웹사이트에 접속해 무료로 기사를 볼 수 있다.

### FT·WP, 학교·학생들에게 무료 구독 또는 구독료 할인 혜택 제공

NYT 뿐 아니라 파이낸셜타임스(FT), 워싱턴포스트(WP)도 학교 및

교사, 학생들에게 무료 구독 또는 구독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신문사들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구독 습관을 만드는 것이 미래의 유료 독자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해 이 같은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FT는 미래독자 확보를 위해 학생과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FT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전세계 2300여 개 학교의 약 3만 4,000명의 학생이 FT 디지털 기사를 무료로 이용 중이다(신문협회보 제610호 참조).

WP는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의 교수·학생·직원 등에게 구독료를 50% 할인해 주는 '아카데미 요금'을 운용 중이다.

## 5개 협의회 올해 사업계획 확정

〈경영지원·광고·기술·기조·출판〉

신문협회 산하 5개 협의회는 최근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각 협의회는 신문업계 당면과제 해결과 회원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경영지원협의회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신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신문제작 원자재 등 회원사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광고협의회는 정부광고법 시행(2018.12.13.)으로 정부광고에 대한 협찬이 가능해진 만큼 일반 상업광고의 경우에도 정부광고법을 준용, 협찬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

하며 신문광고 규제 개선을 위한 TFT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기조협의회는 적정 뉴스 저작권료 산정·포털 뉴스서비스 아웃링크 전환 등 포털과의 상생 방안 모색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술협의회는 윤전기 수명연장 대책 등 회원사 공통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출판협의회는 출판 비즈니스 모델 및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출판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판매협의회는 3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협의회   | 주요사업                                                                                           |
|-------|------------------------------------------------------------------------------------------------|
| 경영지원협 |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신문에 미치는 효과 조사연구<br>△ 신문제작 원자재 등 회원사 공동구매 활성화<br>△ 원자재가격 동향 및 신문제지사 경영현황 자료 조사 |
| 광고협   | △ 일반 상업광고 정부광고와 동일하게 협찬 가능 방안 모색<br>△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TFT 구성<br>△ 공익광고 활성화를 위한 언론진흥재단 간담회 |
| 기술협   | △ 윤전기 수명 연장 대책 등 회원사 공통 당면과제 조사연구 검토<br>△ 인쇄 품질 향상 및 회원사 경비절감 사례 정보 공유<br>△ 신문 인쇄 기술 최신 동향 세미나 |
| 기조협   | △ 적정 뉴스 저작권료 산정 기준 마련<br>△ 포털 뉴스서비스 아웃링크 전환<br>△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협의체 협력<br>△ 신문 관련 법제·정책 규제 개선     |
| 출판협   | △ 해외 성공사례 비즈니스 모델 공유<br>△ 읽기문화 홍보(책의 날 등)<br>△ 회원사 발행 잡지·출판물 자료 공유                             |

## ‘신문의 날 표어’ 2487건 접수

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가 제63회 신문의 날 표어를 공모한 결과 2월 28일 오후 4시 현재 2487건이 접수됐다.

심사위원회는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3월 중에 수상작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4월 4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갖는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패, 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 언론재단,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 지원' 공모

### 3월 13일 마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2019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공모한다.

지원내용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체험활동 및 초·중·고 뉴스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기자체험(취재·편집·제작), 현장견학 등을 혼용한 체험 프로그램(6시간 이상) 등이며, 1개사 당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공모 접수마감은 3월 13일이다.

## “저널리즘 미래 위해 공적기금 지원해야”

▶1면에서 계속

### ⑤ 언론사와 거대 기술회사(포털 등)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 규범 규정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기관의 감독 하에 언론사를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계약에 관한 행동 규범을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 노출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고리

즘 변경은 사전에 알릴 것 △온라인 광고 수익 배분에 관한 투명한 조건을 제공할 것 △언론사와 함께 뉴스 콘텐츠가 플랫폼에 노출, 서비스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 등이 규범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 ⑥ 온라인 광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사

경쟁관리당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공정 경

쟁 강화를 보장하고 반(反) 경쟁 활동을 축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로 한국의 공정거래 위원회에 해당)은 정보 수집 권한을 통해 온라인 광고 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실시, 페이스북과 구글의 시장지배적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 ⑦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품질 개선 의무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기관 감독

하에 사용자의 뉴스 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용자가 뉴스 기사의 출처와 기사의 신뢰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개선해 독자가 '좋은 품질'의 뉴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⑧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 개발

정부는 오프컴, 온라인 플랫폼, 언론사, 시민단체 및 학계와 협력해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 중앙도 월 구독료 2만원으로

### 1부당 가격도 1000원으로 인상

중앙일보가 3월부터 월 구독료를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1부당 판매가격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다.

중앙일보는 2월 28일자 신문을 통해 “그간 신문용지 가격 등 원가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

다”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중앙일보의 구독료 인상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신문협회 회원사 중 월 구독료 2만 원 이상인 곳은 중앙일보를 포함해 매일경제, 서울경제, 전자신문, 한국경제 등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1만8000원인 신문사는 경향, 한겨레신문 2곳이다.

### 발행인 동정

**변재운** 국민일보 발행인은 2월 21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22회 국민일보 청소년 꿈나래 겨울 캠프’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손현덕** 매일경제 발행인은 2월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매경 빅데이터·인공지능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발행인은 2월 19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IB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발행인은 2월 22일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 유니버설발레단과 리틀엔젤스예술단 합동 축하공연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곽재선** 이데일리 발행인은 2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조성부** 연합뉴스 발행인은 2월 20

일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에서 열린 ‘2019 국가브랜드 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발행인은 2월 14일 강릉세인트존스호텔에서 세계여성평화그룹 강원지부 주최로 열린 ‘강원평화실전 아카데미’에 참석해 ‘우리는 왜 평화를 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엄주호** 경상일보 발행인은 2월 18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제1, 2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이상택** 매일신문 발행인은 2월 18일 대구 호텔라운제나에서 열린 ‘매일 탐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진수** 부산일보 발행인은 2월 19일 본사 로비에서 열린 지국 신규확장캠페인 ‘다 가져라, 오토바이!’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노병수** 영남일보 발행인은 2월 19일 대구 호텔라운제나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제17기 졸업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 회원사 동정

#### 아주경제,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

아주경제(발행인 곽영길)는 3월 13~15일 플라자호텔과 국회에서 ‘5차 환율전쟁과 위기의 중국 금융’을 주제로 ‘2019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을 개최한다.

#### 한경, 골프 최고위 과정 모집

한국경제(발행인 김기웅)는 골프 최고위 과정 2기를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3월 28일~7월 4일이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 연합, 대북 지원 사업 위한 업무협약

연합뉴스(발행인 조성부)는 2월 15일 본사에서 대북 인도지원단체인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및 남북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 넥스트홀딩스와 업무협약

경기일보(발행인 신항철)는 2월 18일 본사에서 글로벌 유망 네트워크 회사인 넥스트홀딩스와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 총칭 성회광장 한국상품관’ 사업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남신문, ‘창원야철마라톤대회’

경남신문(발행인 최광주)은 ‘제15회 창원야철마라톤대회’를 4월 14일 개최한다. 참가종목은 하프코스, 10km, 6km.

#### 경북일보, ‘경북 직장대항족구대회’

경북일보(발행인 한국선)는 ‘제20

회 경북일보 사장기 경북 직장대항 족구대회’를 3월 17일 포항 양덕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한다.

#### 경상, ‘제31회 울산아마바둑대회’

경상일보(발행인 엄주호)는 SK와 함께 ‘제31회 울산아마바둑대회’를 3월 17일 울산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참가부문은 어린이부·중고등부·최고위부·단체전·노년부·여성부이며, 접수마감은 3월 8일.

#### 국제, ‘어린이 경제아카데미’

국제신문(발행인 박무성)은 부산·경남지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2019 국제 어린이 경제아카데미’ 과정을 3월 30일 개설한다. 참가비는 무료.

#### 대전, ‘제16회 3대하천마라톤대회’

대전일보(발행인 강영욱)는 ‘제16회 3대하천마라톤대회’를 4월 21일 개최한다. 참가종목은 하프코스, 10km, 5km이며, 접수마감은 4월 8일이다.

#### 매일, ‘탐 리더스 아카데미’ 회원 모집

매일신문(발행인 이상택)은 ‘탐 리더스 아카데미’ 제13기 회원을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3월 11일~2020년 2월 말(1년)이며, 주1회 본사에서 열린다.

#### 충투,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충청투데이(발행인 정남진)는 ‘2019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를 4월 6일 개최한다. 참가종목은 하프, 미니(10km), 건강(5km)코스이며, 접수마감은 3월 15일이다.

### 강원일보 새 발행인에 박진오 前 전무



오(사진) 前 전무를 선임했다. 취임식은 25일 본사에서 열렸다.

약력 ▲강원대 행정학과 졸, 동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강원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 서울지사장, 전무

###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대신협 회장으로 재선임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발행인이 2월 21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에서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김 회장은 2013년부터 대신협 회장을 맡고 있다.

### 편집인협회 새 회장에 김중구 한겨레 편집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회장에 김중구 한겨레 편집인을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 신문협회보

|      |                            |
|------|----------------------------|
| 회장   | 이병규                        |
| 사무총장 | 허승호                        |
| 발행처  | 한국신문협회                     |
|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
| 창간일  | 1985년 4월 15일               |
| 대표메일 | webmaster@presskorea.or.kr |

더 높은 품질, 더 넓은 세계...

최고의 신문인쇄  
**KORINK**가  
약속 드립니다.



**KORINK** 한국신문인크(주)  
www.korink.com